

## Ⅵ. 부록

### 부록 1. 문항별 문항카드

#### 가. 인문계열 I

#### 문항카드 1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영어
	핵심개념 및 용어	비판적 이해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 2. 문항 및 자료

#####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1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미래파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움직임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파는 새롭게 열리는 20세기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로 파악하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의 미’를 이전의 형식과 다르게 표현하려 하였다. 이들은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하였으며,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에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자코모 발라의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는 대상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그려 속도와 시간을 표현하면서 대상의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지 않게 나타내어 움직이는 물체는 흔들린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래파의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들의 작품 구성에는 여전히 움직임 그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윤곽 짓거나,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끝에 추를 단 줄을 빠른 속력으로 돌리면 원 모양과 같은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움직이는 선이 어떤 공간 속에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하여 본질적인 생김새를 띠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조형 예술로 탄생시킨 것이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이다.

키네틱 아트 작품들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을 띤다. 이러한 특성을 ‘비물질화’

라고 하는데,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체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옴 가보와 같은 작가들은 작품이 이동하거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전기 모터 장치를 동력원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알렉산더 칼더는 전기 장치 대신 공기의 흐름으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그는 원색으로 칠해진 금속판으로 ‘모빌(mobile)’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 금속판들은 막대에 매달려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마디가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부드럽게 흔들리거나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된다.

[나] **Certainty**, like permanence and immortality, is one of those conditions we long for despite a great deal of evidence to the contrary. Certainty often confers\* control. And we badly want control in this strange cosmos we find ourselves in. In his classic study *The Golden Bough*, anthropologist James George Frazer discusses how primitive people developed magic so that they could control a world filled with the uncertainties of lightning, storms and vicious\*\* animals. The Bantus in Botswana burn the stomach of an ox in the evening because they think the black smoke will gather the clouds and cause the rain to come. Certainty offers us safety, stability, reliability, predictability, rules for behavior. If I am completely certain that it is unethical to harm other people’s careers in order to advance my own, that certainty provides a clear and constant guide for how to conduct my professional life. Augustine’s absolute certainty about theological\*\*\* and ethical matters may well have been an extension of a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sire for certainty.

\*confer: 부여하다 \*\*vicious: 사나운 \*\*\*theological: 신학의

[다]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 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처럼 ‘~않는다(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certainty’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을 설명하시오. [20점]

### 3. 출제 의도

(1) 문항은 제시문 [나]의 영어 제시문에서 확실성(또는 확신)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키네틱 아트라는 예술사조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이해력, 그리고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EBS 수능 특강 <독서>에 수록된 키네틱 아트라는 예술 사조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대상의 본질을 움직임에 둔 1910년대 이탈리아 미래파에서 출발하여 움직임을 조형 예술로 탄생시킨 키네틱 아트로의 발전 과정과 비물질성이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 문항은 확실성(또는 확신)과 절대성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논리적인 공통점을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영어 구문과 확실성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이를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관 지어 파악해야 한다. 이 문항은 글의 논지 및 논리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1
	2. 교과명: 영어		
	과목명: 영어		관련
	성취기준	[10영03-02]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1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0	85	제시문 [가]	○
EBS 수능특강 영어	EBS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2	190	제시문 [나]	X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0	9	제시문 [다]	○

## 5. 문항 해설

### ■ 문항 1-(1)

제시문 [나]의 영어 제시문에서 사례와 함께 제시된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 [가]의 키네틱 아트라는 예술사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제시문 [나]에서 키네틱 아트의 ‘비물질성’과 그 연원인 미래파의 움직임을 대상의 본질로 파악하는 내용을 제시문 [나]의 확실성과 연관시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개념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문항 1-(2)

문항에서는 영어 지문 제시문 [나]에서 ‘certainty’ (확실성 또는 확신)의 의미가 신학과 윤리라는 추상적인 범주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영어 해석을 통해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제시문 [나]에서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확실성을 추구해 온 인류의 공통된 욕구가 Augustine(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대, 추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다는 제시문 [다]의 주장을 이해함으로써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가 ‘certainty’라는 공통된 주제를 논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은 문맥 파악과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필자들의 논지 전개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제시문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함으로써 이해력과 비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b>제시문 [나]의 요약</b> - 내용 요약의 적절성	5점
	<b>제시문 [가]의 ‘비물질화’ 설명</b> - 대상의 본질과 확실성의 관련 - 대상의 본질을 움직임에 둔 미래파 - 미래파의 회화적 한계를 극복한 키네틱 아트 - 키네틱 아트가 주장하는 비물질성 - 확실성이 움직임에서 비물질성으로 이행	10점
	<b>형식의 완결성</b>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1-(2)	<b>제시문 [나]의 ‘certainty’ 내용 파악</b> -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인류가 추구해온 ‘certainty’(확실성 또는 확신) - 확실성(certainty)의 추상화와 확산: 개인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확신 및 어거스틴(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5점
	<b>제시문 [나]의 ‘certainty’와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쟁’의 관계 추론</b> ▶ ‘선과 악의 논쟁’ 내용 요약(5점) -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봉착한 악의 문제 - 신에 대한 확신을 지키기 위한 아퀴나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 ▶ 확실성을 추구하면 봉착할 수 있는 문제(5점) - 어거스틴의 절대적인 확신과 중세 기독교의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확신의 공통점 -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를 확신한 아퀴나스가 ‘악’의 존재라는 현실에 직면해서 ‘선과 악에 대해 논증’함으로써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함.	10점
	<b>형식의 완결성</b>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 7. 예시 답안

## ■ 문항 1-(1)

제시문 [나]는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인류가 ‘certainty’ (확실성 또는 확신)를 추구해 왔다고 주장한다. 비록 현실에서는 확실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 안정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행동 규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인류학자인 Frazer는 원시인들에게 마법은 불안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확

실성이었고, 소의 내장을 태우는 기우제는 Bantu족에게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리게 하는 확실성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반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처럼 확실성이 개인의 행동 지표가 될 수 있고, 또한 Augustine(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처럼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도 확대, 추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가]에 제시된 ‘비물질화’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에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이었다. 이는 1910년대 이탈리아 미래파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미래파는 당초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이라고 보고 여기에 확실성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화에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래파의 회화 작품에는 대상의 본질인 움직임 자체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움직임 자체를 조형 예술로 탄생시킨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윤곽짓거나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방법이 시도되었다. 키네틱 아트에서 보자면, 종래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다고 본 반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비물질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대상의 본질을 움직임에 둔 확실성이 키네틱 아트에서는 ‘비물질화’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 ■ 문항 1-(2)

제시문 [나]는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certainty’ (확실성 또는 확신)를 추구해 온 인류의 공통된 욕구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Augustine(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처럼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도 확대, 추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즉, 긍정 신학이나 부정 신학 모두에서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은 확실성 또는 확신의 대상이지만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악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만약 악을 인정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절대적인 신에 대한 확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존재와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선과 악의 공존을 설명했다. 즉, ‘사과’는 신의 창조물로 선한 존재이나, 썩은 사과는 존재를 부정하는 악이다. 또한 사과를 존재하게 만드는 과정인 작용이란 면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사과에 대한 악이라는 주장이다. 그 결과 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변호하기 위한 아퀴나스의 신학적 질문은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 윤리적 판단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변호하기 위한 아퀴나스의 노력이며, 이때 확실성은 제시문 [나]가 언급하고 있는 ‘certainty’나 그 연장선 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어거스틴(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문항카드 2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비판적 이해, 작품 해석, 한국 문학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 2. 문항 및 자료

####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다.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 없다. 물론 속도를 맞추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중략)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점점 빨라져 가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 버린 「모던 타임스」 속 찰리 채플린의 곤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략)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의 파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란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략)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선 때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마]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 알았지?” (중략)

1절까지는 엇박자 D도 열심히 립싱크를 해주었다. 간주가 시작되고 2절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반 박자 빨리.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형클어졌다. 아이들은 우왕좌왕했고, 지휘를 하던 음악선생은 눈을 크게 뜨고 엇박자 D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그만 부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엇박자 D는 눈을 꼭 감은 채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합창에 관심 없던 주위 사람들이 공연장 앞으로 몰려들었고 엉망진창 노래를 들은 관객들은 우리의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웃었다. 화가 난 음악선생은 반주를 멈추게 했다. 아이들도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눈을 감은 엇박자 D는 멈추지 않았다. 음악선생이 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다. (중략)

엇박자 D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엇박자 D의 인생역정 출연진에 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때 엇박자 D를 때렸던 음악선생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어쩌면 옆에 있던 우리들도 그의 뺨을 함께 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랬다면 미안한 일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공연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야?” / “짧게 말하자면, 내가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숙제가 해결되기라도 해?” / “글쎄, 그건 해봐야 알겠지.” (중략)

총괄 프로듀서는 엇박자 D였고, 나는 무대 매니저 겸 보조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 (중략)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가 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문항 2] 제시문 [라]의 관점과 제시문 [마]의 ‘엇박자 D’의 공연 기획 의도를 각각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30점]

###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속도감에 대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설 「엇박자 D」의 주제와 연결지어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추론적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린 이진경의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이라는 글의 일부로 시간이 돈이 되기에 빠름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도의 파시즘’에 대해 비판하며 외부에서 강요되는 속도가 아닌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 교과서에 실린 김중혁의 소설 「엇박자 D」의 발췌문이다. 이 소설은 고등학교 합창 공연을 망쳤던 음치 ‘엇박자 D’가 20년 후 자신이 기획한 음치들의 합창 공연을 통해 남과 다르다는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본 문항에서는 ‘속도’와 ‘합창’이라는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전체’와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글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항 2
	성취 기준 2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문항 2
	성취 기준 2	[10국05-05]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1	62-66	제시문 [라]	○
국어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21	134-143	제시문 [마]	○
독서	서혁 외	좋은책신사고	2021	87-94	제시문 [마]	○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엇박자 D (악기들의 도서관)	김중혁	문학동네	2008	256-281	제시문 [마]	○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라]와 [마]의 핵심적 내용과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두 글의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속도의 빠름에 대한 강요, 즉 ‘속도의 파시즘’에 대해 비판하고 자신만의 속도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면, 제시문 [마]에서는 ‘음치’라는 상징을 통해 남들과 다른 것이 틀림으로 인식되는 사회의 획일화에 맞서 통일되지 않는 각각의 노랫소리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두 글은 ‘속도’와 ‘합창’이라는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성’, ‘사회’에 맞추어 ‘부분’, ‘고유성’, ‘개인’이 강압적으로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글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글에 대한 추론적 독해력과 작품 해석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b>제시문 [라]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이해</b> -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하는 ‘속도의 파시즘’의 시대이나 그 속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관성적인 속도에 이탈하는 변속 능력이 중요함을 서술함.	7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b>제시문 [마]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이해</b> - 고등학교 시절 통일된 합창을 망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엇박자 D’가 전체로 통일되지 않은 고유한 소리들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함.	7점
	<b>제시문 [라], [마]의 공통점에 대한 종합적 이해</b> - 제시문 [라]와 [마]에서는 세계 혹은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획일화를 비판하고 개인의 고유성, 다양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서술함.	10점
	<b>형식의 완결성</b>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6점

## 7. 예시 답안

제시문 [라]에서는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며 사는 것이나 각기 다른 속도를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하는 것은 각자의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됨을 이야기한다. 특히, 시간이 돈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가 누구나 따라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버리는 ‘속도의 파시즘’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의 필자는 ‘자신의 춤’이라는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 강요하는 속도에 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마]의 ‘엇박자 D’는 음치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합창 공연에서 차별과 폭행을 경험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20년 후 자신이 기획한 음치들의 합창 공연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가 기획한 음치들의 노래 공연은 서로 음과 박자가 맞지 않은 노래였으나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 ‘음치’는 전체를 이루는 다수들과는 다른 소수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음악선생의 폭력과 다른 친구들의 동조는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는 억압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에서는 ‘엇박자 D’가 기획한 음치들의 노래를 통해 통일되지 않은 다양성 역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다양성의 존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의 관점과 [마]의 ‘엇박자 D’의 공연이 지닌 의도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다수인 ‘전체’에 소수인 ‘개인’이 수동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전체와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억압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두 글은 사회가 개인에게 같음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은 각자의 고유성을 찾음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문항카드 3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 / 문항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한국 문학, 분석적 이해, 공감적 이해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 2. 문항 및 자료

####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 무술년은 내가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 버렸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뺄어져진 것 같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니 놀랍게도 딴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내려 하였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은 짚자리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늙은이가 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예순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할까 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옛날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朱子)도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계기가 되어, 본심을 잃지 않고 타고난 착한 성품을 기르는 데 전심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자 더 일찍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의 이가 빠진 것도 또한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수복(壽福)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손익을 따져 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늙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경망스럽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려면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늙음을 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여유를 가지

고 쉬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리하여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살다가, 아무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며, 근심을 떨쳐 버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즉 ‘의미에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 내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 두 자식을 모두 잃었다. 인생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그러나 프랭클은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의미에의 의지’를 발동하여 ‘의미’를 찾고 인생을 건디어 내었다.

하루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체가 정전되어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 불안에 떨며 누워 있을 때, 프랭클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그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다. 드디어 수용소 막사 전등에 불이 켜지고 그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틀거리며 물려오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았다. 나를 찾고,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에게 ‘의미’가 되는 셈이다. 프랭클은 인생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인생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책임과 직결되는 셈이다.

프랭클은 또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에 주목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로 가야 하는 운명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지막 자유로 남아 있다. 그 마지막 남은 자유로 인하여 인간은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자유에 의해 의지는 완성된다.

[문항 3]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30점]

### 3. 출제 의도

두 제시문은 시대적·공간적 배경, 문제 상황 및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룬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에서 각기 발췌한 글이다. 이 문항은 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각기 다른 두 제시문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내는 분석력과 공감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김동환 외)에 수록된 김창흡의 <낙치설>에서 발췌한 글이다. 조선 중기 문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김창흡의 <낙치설>에는 그가 예순여섯 살에 경험한 앞니가 빠져 버린 사건과 이로 인한 충격,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노인 됨을 받아들이는 지은이의 성찰이 드러나 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읽어서 알았지만 수긍하지 않았던 유교 경전의 지식을 비로소 내면화하고 노년의 주자 사례를 떠올리며 노인의 삶에 알맞은 삶의 방식 및 태도 등을 모색하여 조화 속에서 담담하고 여유 있는, 즉 자유롭게 살아도 도에 합당한 경지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바]의 경우는 노인 되기, 유교 지식인의 삶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제시문 [사]는 EBS 올림포스 <독서>에 수록된 조성기의 <나를 지켜보는 이, 그 한 사람

이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제시문 [사]에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어떠한 자세로 그 죽음과 고통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 내었는가가 기술되어 있다. 프랭클은 악명 높은 극한의 실존적 한계 상황 속에서도 굴복되지 않는 정신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내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은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자유가 남아 있으며 이때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시문 [사]의 경우는 환경과 조건에 굴복 당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항 3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3

#####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22	125-128	제시문 [바]	○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올림포스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132	제시문 [사]	○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해 한국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두 제시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두 글의 흐름과 짜임을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기 노화, 노년의 삶 및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다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통하여 공감적 이해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b>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공통점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화를 수용하고 노년이라는 인생 주기의 의미를 모색해 가는 제시문 [바]에 대한 이해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켜 나간 제시문 [사]의 요지를 이해함.</li> <li>- 각기 다른 상황을 다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읽고 글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 발견함.</li> </ul>	10점
	<b>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차이점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추출하고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 한계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함.</li> <li>-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 해결 태도 및 방법 등을 추출하고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설명함.</li> <li>- 두 제시문에 나타난 각기 다른 문제 해결 방법 및 삶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li> </ul>	15점
	<b>형식의 완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li> </ul>	5점

## 7. 예시 답안

먼저 두 제시문에 나타난 공통점부터 보기로 하자. 유교 지식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제시문 [바]의 ‘나’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자였던 제시문 [사]의 빅터 프랭클은 각기 처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고양된 삶에 대한 의지를 작동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제시문 [바]의 ‘나’와 제시문 [사]의 프랭클은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정신과 태도를 통해 ‘나’는 여유롭고 즐거운 노인의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고,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두 제시문에 나타난 차이점을 보면,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는 문제 상황부터 차이가 있다. 제시문 [바]의 ‘나’가 처하게 되는 문제는 문득 앞니가 빠지는 신체적 한계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의 결핍과 한계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어떤 개체도 피해 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속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사]의 프랭클

이 처한 문제 상황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이라는 실존적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시문 [바]의 노화와는 달리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은 집단이 개인에게 가한 부당한 폭력이자 억압이다.

두 글은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제시문 [바]의 《예기》에 대한 언급을 보면 ‘나’는 60세가 넘는 노인이었지만 그때까지도 노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앞니가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자신이 읽었던 《예기》의 내용과 주자의 사례를 통해 그는 자신의 노화, 노인 됨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감각적 세계를 극복하고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담담하고 평안하게 노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즐기며 삶의 도를 터득해 갈 수 있었다. 제시문 [바]의 ‘나’는 ‘마음 속 독서’와 자연의 섭리, 순리에 순응하고 따르는 방식으로 노년이라는 자신의 생애 주기를 고양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제시문 [바]의 ‘나’가 노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해 간 데 비해 제시문 [사]의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공포와 실존적 한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 상황에 대처하였다. 프랭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를 잃지 않았고, 애써 의미를 지어 나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수용소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감된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런 그의 선택은 그가 실존적 주체로서 삶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자유, 즉 선택의 자유를 기억하며 의지를 완성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 나. 인문계열 II

## 문항카드 4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II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국어,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교양 독서, 비판적 이해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 2. 문항 및 자료

##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감각 기관의 이기적 욕구와도 통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볼 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이었습니다. (중략)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대로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라면, 현실의 인간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중략)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의 본성과 가장 악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길 임금이나 도척의 본성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순자가 같다고 본 본성은 당연히 생리적·감각적인 본성입니다.

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의 결과인 셈입니다.

[나] 세력 균형 전략은 외부 세력이 침략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이 존재해야 국가 안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군사력 증강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국제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본다. 냉전 시대 군사 동맹이 만들어진 것과 세계 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등은 세력 균형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 전략은 ‘안보 딜레마’, 즉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한 노력이 거꾸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집단 안보 전략은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인간과 국가가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행동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제 규범을 집행할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침략국을 응징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UN)을 설립한 것은 집단 안보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 전략은 현실 세계에서 국가들이 규범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 1967년 이스라엘은 이른바 ‘6일 전쟁’을 통해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반도를 점령했다. 이후 두 나라는 10년이 넘게 날 선 대립을 보이다가 1978년 마침내 협상 탁자에 마주 앉았다. 시나이반도를 돌려 달라는 이집트와 이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자칫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시나이반도를 돌려 주되 그곳을 비무장 지대로 설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협상의 핵심은 두 나라 모두 시나이반도를 원했지만 그곳을 원한 이유가 달랐던 데에 있었다. 이집트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음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길 바랐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 지대로 시나이반도를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나이반도를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나누어 이집트가 시나이반도의 ‘소유권’을 갖되 ‘사용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타협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중략)

서로가 만족하는 타협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동료’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적대적 태도보다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협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경청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맹자와 순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현실주의’의 타당성을 각각 평가하시오. [20점]
- (2) 국제 평화를 이루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시문 [나]의 ‘집단 안보 전략’과 제시문 [다]의 주장을 대조하시오. [20점]

###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맹자와 순자가 인간의 본성과 의지에 대해 논한 두 개의 상이한 관점에서 국제 관계 관련 현실주의의 타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교과서에 수록된, 김교빈과 이현구가 공저한 「동양 철학 에세이 1」의 “순자의 성악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맹자와 순자와 같은 학자들이 상이한 가정을 하였으며, 특히 순자의 경우 단순히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규정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실천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정치와 법」 저자들(서범석 외)이 국제 문제 관련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서술한 글에서 발췌하였다. 현실주의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가정 하에 국제 관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유사하다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는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국어」의 저자들(이성영 외)이 직접 집필한 “상생의 길, 협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전쟁 당사국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타협에 임할 때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1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1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0국0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문항 1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문항 1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21	108-110	제시문 [가]	○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22	188	제시문 [나]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21	249-253	제시문 [다]	○

## 5. 문항 해설

### ■ 문항 1-(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맹자와 순자의 주장에 입각할 때 제시문 [나]에 제시된 현실주의의 타당성이 어떠한지 평가하게 하였다. 맹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착하다고 주장한 반면, 순자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의지적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문제는 맹자와 순자의 인간관을 응시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인간관에 근거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특정 이론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응시자들이 충분한 논리력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나]의 ‘집단 안보 전략’과 제시문 [다]의 국제 협상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위한 두 관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보았다. 제시문 [나]의 집단 안보 전략은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침략국에 대한 응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제시문 [다]는 분쟁 당사국 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 문항은 두 시각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상이한 주장 간 차이점을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b>제시문 [가]의 맹자와 순자의 견해를 적절하게 서술</b> - 맹자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착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순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이기적인 성향을 갖지만, 이를 의지적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4점
	<b>제시문 [가]의 맹자의 입장에서 현실주의를 적절하게 평가</b>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입각할 때 인간이 이기적이	4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라 생각하는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적절하게 가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것이다.</p> <p>- 그러므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 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것이다.</p>	
	<p><b>제시문 [가]의 순자의 입장에서 현실주의를 적절하게 평가</b></p> <p>- 순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이기적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현실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정하는 바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순자는 맹자에 비해 현실주의의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다.</p> <p>- 하지만 순자는 인간을 의지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순자는 현실주의가 인간의 의지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p>	6점
	<p><b>형식의 완결성</b></p> <p>-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p>	6점
1-(2)	<p><b>집단 안보 전략과 제시문 [다]의 국제 평화를 위한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b></p> <p>- 제시문 [나]의 집단 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침략국에 대한 응징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p> <p>- 제시문 [다]는 전쟁 당사국들 간의 이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p>	7점
	<p><b>응징과 타협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대조</b></p> <p>- 제시문 [나]의 집단 안보 전략은 적절한 응징을 위해 국제기구 및 보편적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p> <p>- 제시문 [다]는 타협을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지사지해서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7점
	<p><b>형식의 완결성</b></p> <p>-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p>	6점

## 7. 예시 답안

### ■ 문항 1-(1)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맹자의 인간관에 입각할 때 인간이 이기적이라 생각하는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폄하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놓여 있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 욕구로 인해 악한 본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국가 간 분쟁과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순자의 인간관에 기반할 때, 인간의 이기심으로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며, 의지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을 단순히 이기적일 뿐인 존재로만 가정하는 현실주의는 인간의 후천적 의지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문항 1-(2)

제시문 [나]의 집단 안보 전략은 국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침략국을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집단 안보 전략은 다수의 국가들이 보편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이에 위반하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의 저자는 국제기구 설립과 침략국에 대한 응징보다는 전쟁 당사국 간의 적극적인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쟁 당사국끼리 서로를 이해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지사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당사국 간의 타협만으로 평화로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문항카드 5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II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실용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교양 독서, 비판적 이해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 2. 문항 및 자료

##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 아래의 표는 A대학교 대학원의 지원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에 관한 정보이다. A대학교의 대학원에는 사회과학대학원, 공학대학원, 인문대학원만 있으며, 대학원 입학전형은 각 단과대학별로 진행된다.

〈표 1〉 대학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지원자	1,900명	1,950명
합격자	390명	190명
합격률	20.5%	9.7%

〈표 2〉 사회과학대학원

	남학생	여학생
지원자	190명	1,300명
합격자	10명	70명
합격률	5.3%	5.4%

〈표 3〉 공학대학원

	남학생	여학생
지원자	1,230명	120명
합격자	300명	30명
합격률	24.4%	25.0%

〈표 4〉 인문대학원

	남학생	여학생
지원자	480명	530명
합격자	80명	90명
합격률	16.7%	17.0%

[마]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수집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바위나 모래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을 채굴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과

정므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패턴들은 요구 사항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예측, 연관, 군집으로 구분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집합에 존재하는 속성들 간의 패턴을 확인하는 모형을 만드는데, 이때 모형은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밝히는 수리적 표현을 이룬다.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에서 군집 분석은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한 분석법이다.

군집 분석은 범주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만 의존하여 비슷한 객체들끼리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군집화(clustering)는 데이터 분석에서 물리적 혹은 추상적 객체들을 서로 비슷한 객체끼리 군집을 형성하여 그룹화하는 것이다. 군집은 같은 군집 내의 객체들과는 유사하고, 다른 군집의 객체들과는 상이한 객체들의 집합이다. 또한 군집은 여러 응용에서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여겨지거나 객체들의 요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군집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할이라고도 한다. 이때 유사성 정도는 대상을 정의하는 속성값을 통해 계산하는데, 주로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끼리 묶는 거리 측정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각각의 군집의 특징을 관찰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특정 군집 집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문항 2] 제시문 [라] ~ [마]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제시문 [라]에서 <표 1>의 대학원 전체 합격률을 보면 남녀 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표 2>, <표 3>, <표 4>를 근거로 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남녀 차별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제공된 숫자를 이용하여 분석하시오. [15점]
- (2) 제시문 [라]의 불일치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제시문 [마]에 기술된 ‘군집 분석’의 유용성을 설명하시오. [15점]

###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및 진실에 더욱 접근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료 전체의 통계분석 결과도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자료를 분할하여 들여다 보면 전체 자료에서는 미처 나타나지 않았던 추가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전체 자료와 분할된 자료가 각각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자료와 통계를 바라보는 이해력, 분석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라]는 197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한 표를 제공한다. 전체 학교 자료에서는 남학생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지만, 각 단과대학에서는 모두 다 여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다. 이는 전체 집단의 통계치가 부분 집단의 통계치와 상충할 수 있다는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예제를 통해 전체 집단을 분할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때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시문 [마]는 자료를 분석하여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중 특히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군집 분석은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존하여



물리적 혹은 추상적 객체들을 서로 비슷한 객체끼리 군집을 형성하여 그룹화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체 집단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의 유용한 정보나 관계를 분할한 집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전체 집단의 통계치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사실을 부분 집단의 통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심층의 역설과 방법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2
	성취 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2
	과목명: 실용국어		관련
	성취 기준	[12실국02-03]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대상과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한다.	문항 2

#####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실용국어	민병곤 외	미래엔	2022	103-104	제시문 [라]	○
실용국어	이동영 외	창비	2022	137-142	제시문 [라]	○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0	191-192	제시문 [마]	○

## 5. 문항 해설

### ■ 문항 1-(1)

이 문항은 제시문 [라]를 통해 단순히 전체 집단의 통계를 통해 사회적 현상(예, 남녀 차별)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 집단을 세부적인 집단(단과대학)으로 나누어 통계를 확인했을 때 핵심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체 집단의 통계가 부분 집단의 통계와 다른 것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발생한 남녀 차별 문제 안에서 보여주고, 이러한 불일치를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남녀 차별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라]에서 발생한 전체 집단과 부분 집단의 불일치 현상을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제시문 [마]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으로 소개된 군집 분석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군집 분석은 자료를 분할하여 나뉜 집단들에서 특징을 관찰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 제시문 [라]에서 남녀차별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분할하여 합격률을 확인했던 것처럼 유용한 자료분석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b>제시문 [라]의 전체 대학원 표와 단과대학 표들의 합격률 설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대학원 통계에서는 남학생의 합격률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높음.</li> <li>- 각 단과대학의 통계에서는 남학생의 합격률이 여학생보다 높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 더 낮음.</li> <li>- 전체 집단의 통계치와 부분 집단의 통계치가 다를 수 있음.</li> </ul>	5점
	<b>제시문 [라]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분석적인 설명 및 대학 당국의 판단 근거 설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집단과 부분 집단의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를 개별 숫자를 이용하여 분석적으로 설명</li> <li>- 각 단과대학의 지원자 숫자와 정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불일치가 발생했음. 즉, 사회과학대학원은 정원의 규모가 작고 여학생이 많이 지원하였으며, 공학대학원은 정원의 규모가 크고, 남학생이 많이 지원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한 것임.</li> <li>- 합격에 대한 부분은 각 단과대학별로 진행되므로 단과대학 내에서 남녀 차별이 없었다면 학교 전체적으로도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음.</li> </ul>	5점
	<b>형식의 완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li> </ul>	5점
2-(2)	<b>제시문 [라]에서 불일치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 설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집단의 통계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li> </ul>	5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부분 집단의 통계치를 확인하면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음.</p> <p>- 즉, 전체 집단과 부분 집단의 통계치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p>	
	<p><b>제시문 [마]의 군집 분석의 유용성 설명</b></p> <p>- 군집 분석은 전체 집단을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비슷한 객체들끼리 묶는 방법으로서, 분할된 자료에서 각 군집의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p> <p>- 자료를 분할하여 분석하면, [라]에서처럼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군집 분석은 유용할 수 있음.</p>	5점
	<p><b>형식의 완결성</b></p> <p>-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p>	5점

## 7. 예시 답안

### ■ 문항 2-(1)

대학원 전체의 평균적인 합격률을 보았을 때, 남학생의 합격률이 확연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과학대학원, 공학대학원, 인문대학원을 따로 확인하였을 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격비율이 매우 비슷하거나 여학생의 합격률이 살짝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질적인 합격률 차이의 원인이 (성별이 아닌) 단과대학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원이 많고 합격률도 높은 공학대학원에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했고, 정원이 적고 합격률이 낮은 사회과학대학원에는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각 단과대학을 지원한 것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입학전형이 진행된 단위인 단과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원한 학생 대비 모두 여학생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으므로 입시 과정에서 남학생이 특별히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남녀 차별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문항 2-(2)

제시문 [라]를 보면, 사회적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평균 비율을 확인하거나 전체 집단을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자료의 통계치가 부분 집단의 통계치를 완전하게 대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집단별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군집 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하나의 집단으로 가정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을 세부적인 여러 개의 유사한 집단으로 나누어 자료가 가진 본질에 더 근접하려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군집 분석은 하나의 통계치가 자료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탄생한 통계분석 기법이다.

제시문 [라]에서 자료를 분할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집단을 그룹화하여 분석하는 군집 분석이 자료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 문항카드 6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Ⅱ / 문항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수요, 공급, 시장 균형, 자유 무역, 최고 가격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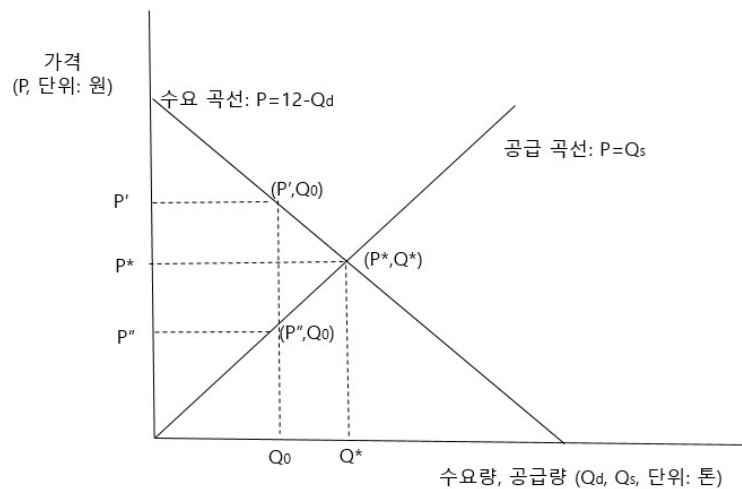
### 2. 문항 및 자료

####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 국가 A의 밀가루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Q_d = 12 - P$ 이고 공급 곡선은  $Q_s = P$ 이며,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Q_d$ 와  $Q_s$ 는 각각 가격  $P$ 에서의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의미한다. 현재 A국 정부는 밀가루에 대하여 자급자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점  $(P^*, Q^*)$ 이다. 수요 곡선 및 공급 곡선에는 변동이 없으며, 국제 밀가루 가격은 단위당 4원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1> A국 밀가루 시장의 수요 및 공급 곡선



【II】 소비자는 누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효용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나머지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수요 곡선 위의 점  $(P', Q_0)$ 에서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P'$ 과 균형 가격  $P^*$ 의 차액이다.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효용을 반영하므로, 수요 곡선 상의 가격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을 나타낸다. 시장에 참여한 소비자 전체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수요량  $Q_0$ 가 0에서  $Q^*$ 까지 변할 때 각 수요량에서의 소비자 잉여를 모두 더한 것이므로 수요 곡선과 시장 균형 가격 사이의 면적이 된다.

생산자들은 누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다.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들어간 생산비 때문이다. 생산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가격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공급 곡선 위의 점  $(P'', Q_0)$ 에서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 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P''$ 의 차액이다. 시장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생산비를 반영하므로, 공급 곡선상의 가격은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공급하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시장에 참여한 생산자 전체가 얻는 생산자 잉여는 공급량  $Q_0$ 가 0에서  $Q^*$ 까지 변할 때 각 공급량에서의 생산자 잉여를 모두 더한 것이므로 시장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 된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사회적 잉여라고 한다.

- (1) 자급자족 정책 하에서 A국의 밀가루 균형 가격( $P^*$ )과 균형 거래량( $Q^*$ )을 구하시오. [8점]
- (2)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던 A국 정부는 특별한 무역장벽 없이 밀가루를 국제 가격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유 무역 정책 하에서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및 사회적 잉여를 구하시오. [12점]
- (3)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던 A국 정부는 국내 밀가루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최고 가격제 시행을 결정하고 최고 가격을 단위당 4원으로 설정하였다. 최고 가격제 하에서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및 사회적 잉여를 구하고, 자유 무역 정책 하의 결과와 비교하시오. [10점]

### 3. 출제 의도

- 3-(1). 수요 곡선 및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3-(2). 자유 무역 정책하에서의 수입이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3-(3). 폐쇄 경제 하에서의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문항 3
	성취기준 2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문항 3
	성취기준 3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문항 3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1	51-53, 64-67, 140	문항 3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2	63, 74-76, 139	문항 3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2	64-65, 68-71, 144-146	문항 3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22	62, 73-78, 150-151	문항 3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1	57-58, 61-63, 138	문항 3	○

#### 5. 문항 해설

##### ■ 문항 3-(1)

밀가루 시장의 균형인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찾는 문항이다.

##### ■ 문항 3-(2)

국제 균형 가격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를 구하는 문항이다.

### ■ 문항 3-(3)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하며 국제 가격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를 구하고, 이를 자유 무역 정책 결과와 비교하는 문항이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밀가루 시장의 균형 가격 산출 (4점) 밀가루 시장의 균형 거래량 산출 (4점)	8점
3-(2)	자유 무역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의 균형 가격 산출 (2점) 자유 무역에서 균형 거래량 산출 (4점) 소비자 잉여 산출 (2점) 생산자 잉여 산출 (2점) 사회적 잉여 산출 (2점)	12점
3-(3)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 산출 (2점) 소비자 잉여 산출 (2점) 생산자 잉여 산출 (2점) 사회적 잉여 산출 (2점) 정책 평가 : 자유 무역에 비하여 소비자 잉여는 32원에서 24원으로 8원 감소, 생산자 잉여는 8원으로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잉여가 축소됨. (2점)	10점

## 7. 예시 답안

### ■ 문항 3-(1)

#### ▶ 자급자족 균형

- 균형 조건  $Q_d = Q_s$ 를 만족하는 균형 가격( $P^*$ )은 6, 균형 거래량( $Q^*$ )은 6이다.

### ■ 문항 3-(2)

#### ▶ 자유 무역 균형

- 자유 무역 정책 하에서 균형 가격은 4원이 되며, 균형 가격 4원에서의 균형 거래량은 8톤이고, 그 중 국내 공급량은 4톤, 해외 공급량은 4톤이 된다.
- 소비자 잉여 :  $1/2 \times (12-4) \times 8 = 32$ 원  
생산자 잉여 :  $1/2 \times 4 \times 4 = 8$ 원  
사회적 잉여 :  $32\text{원} + 8\text{원} = 40\text{원}$